WEBVTT

00:00:11.332 --> 00:00:14.186
안녕하세요?
장동준 샘입니다.

00:00:14.286 --> 00:00:17.648
이번 시간 장동준의 왕초보
만화 국어 문법,

00:00:17.748 --> 00:00:20.448
생강 국어 문법 9강인데요.

00:00:20.548 --> 00:00:23.454
지난 번에 우리가 표준어
규정에 대해서 배웠죠?

00:00:23.554 --> 00:00:26.875
이번 시간에는 한글 맞춤법에
대해서 보겠습니다.

00:00:26.975 --> 00:00:28.782
많이 어려워하죠, 우리 친구들이.

00:00:28.882 --> 00:00:31.775
한글 맞춤법을 평소에 다
외우는 것도 쉽지 않고

00:00:31.875 --> 00:00:36.143
맞춤법도 계속 시대가
흐르면서 변화하고 있고.

00:00:36.243 --> 00:00:41.785
그다음에 맞춤법이 예전에는
보기에서 다 제시가 되어 있어서

00:00:41.885 --> 00:00:45.824
특별히 외우지 않아도 풀 수
있었던 문제들이 많았는데

00:00:45.924 --> 00:00:49.654
지금은 선택지 중간 중간에 나와요.

00:00:49.754 --> 00:00:52.861
한글 맞춤법 지식을 아는지
모르는지를 측정하는

00:00:52.961 --> 00:00:54.479
그런 선택지가 나오기 때문에.

00:00:54.579 --> 00:00:57.943
그리고 예전에는 아예 한 문제
자체가 맞춤법을 아냐, 모르냐.

00:00:58.043 --> 00:00:59.579
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.

00:00:59.679 --> 00:01:03.331
그래서 이 맞춤법을 부분을 심도
있게 잘 보는 게 중요하고.

00:01:03.431 --> 00:01:06.609
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시를
많이 준비해서 넣은 거예요.

00:01:06.709 --> 00:01:12.504
생강 국어 문법이 최신 트랜드를
반영해서 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

00:01:12.604 --> 00:01:14.776
출시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.

00:01:14.876 --> 00:01:19.438
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
나와 있는 예시들만 잘 외워놔도

00:01:19.538 --> 00:01:22.889
절대 틀리지 않는다고
알면 되겠습니다.

00:01:22.989 --> 00:01:24.617
그래서 옛날에 강의할
때는 한글 맞춤법은

00:01:24.717 --> 00:01:28.764
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갔던 정도로
끝냈던 경우가 많았어요.

00:01:28.864 --> 00:01:31.139
옛날 기출 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.

00:01:31.239 --> 00:01:34.229
하지만 최근 기출 문제는
지식을 요구한다.

00:01:34.329 --> 00:01:36.433
맞춤법을 아냐, 모르냐.

00:01:36.533 --> 00:01:39.879
이런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
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더

00:01:39.979 --> 00:01:42.940
사례에 집중해서 강의를
하도록 하겠습니다.

00:01:43.040 --> 00:01:51.441
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1항과
2항 총칙을 봐야 되겠는데.

00:01:51.541 --> 00:01:53.803
2항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.

00:01:53.903 --> 00:02:00.031
1항을 중심으로 총칙에 대한
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2:00.131 --> 00:02:02.787
그 전에 145쪽을 잠깐 볼게요.

00:02:02.887 --> 00:02:08.064

거기 이런 말이 있죠.

00:02:08.164 --> 00:02:10.930
세 번째 컷에 보면,

00:02:11.030 --> 00:02:15.046
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우리
문자인 한글로 적는 방법을

00:02:15.146 --> 00:02:18.378
표준화한 것으로 우리말을
적는 통일된 방식이 없어

00:02:18.478 --> 00:02:20.708
사람마다 작년방식이 제각각이라면

00:02:20.808 --> 00:02:23.769
우리의 문자 생활은
큰 혼란에 빠진다.

00:02:23.869 --> 00:02:29.409
그래서 하나의 정해진 규범이
필요하다는 이야기죠.

00:02:29.509 --> 00:02:33.397
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효율적이고
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

00:02:33.497 --> 00:02:35.761
없으면 안 될 규범이다.

00:02:35.861 --> 00:02:40.580
그래서 현재 한글 맞춤법이 총
여섯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

00:02:40.680 --> 00:02:42.322
제가 언급을 했는데요.

00:02:42.422 --> 00:02:45.241
146쪽 다음 페이지 보면,

00:02:45.341 --> 00:02:49.582
제1장 총칙에서는 한글 맞춤법의
원칙과 띄어쓰기의 원칙,

00:02:49.682 --> 00:02:51.636
그리고 외래어 표기 원칙을 제시했고

00:02:51.736 --> 00:02:53.850
제2장 자모, 자음과 모음이죠?

00:02:53.950 --> 00:02:56.854
자모에서는 한글 자모의
순서와 이름을 정해놨다.

00:02:56.954 --> 00:02:59.299
이어지는 3장부터 6장에서는

00:02:59.399 --> 00:03:01.396
소리에 관한 거, 형태에
관한 거, 띄어쓰기.

00:03:01.496 --> 00:03:04.484
여기가 핵심, 여기가 중요한
부분이 아주 많고요.

00:03:04.584 --> 00:03:09.050
또 그 밖에 것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
맞춤법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.

00:03:09.150 --> 00:03:15.878
그러면 일단 여기서 총칙 부분
1항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3:15.978 --> 00:03:19.800
제1항 보면 한글 맞춤법은
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

00:03:19.900 --> 00:03:22.193
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00:03:22.293 --> 00:03:26.642
한글 맞춤법의 원리를
보여주는 부분으로서

00:03:26.742 --> 00:03:28.320
정말 중요한 겁니다.

00:03:28.420 --> 00:03:31.419
그리고 기출 문제 보면
보기에서도 자주 등장했고요.

00:03:31.519 --> 00:03:36.138
그래서 이 1항은 완벽하게 우리가
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.

00:03:36.238 --> 00:03:40.924
이 조항은 한글 맞춤법의
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

00:03:41.024 --> 00:03:45.165
표기 대상은 표준어임을
분명히 하고 있다.

00:03:45.265 --> 00:03:48.505
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준어
규정을 먼저 배운 이유가

00:03:48.605 --> 00:03:49.810
바로 이것입니다.

00:03:49.910 --> 00:03:52.674
표준어를 아니까 이게 들어오잖아요.

00:03:52.774 --> 00:03:54.986
표기 대상이 표준어임을
분명히 합니다.

00:03:55.086 --> 00:03:58.388
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.

00:03:58.488 --> 00:04:00.842

한글 맞춤법은 표준어,

00:04:00.942 --> 00:04:03.903
표준어는 지난 번에 공부했으니까
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.

00:04:04.003 --> 00:04:07.915
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
함을 원칙으로 한다.

00:04:08.015 --> 00:04:11.655
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
봐야 되겠습니다.

00:04:11.755 --> 00:04:15.321
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

00:04:15.421 --> 00:04:19.688
표기 대상이 표준어라고 하는
거는 다시 한 번 이야기했으니까

00:04:19.788 --> 00:04:21.257
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고.

00:04:21.357 --> 00:04:24.493
표준어를 적는 방식.

00:04:29.623 --> 00:04:33.295
여기에 우리가 주목을
해야 되겠습니다.

00:04:33.395 --> 00:04:37.660
표준어를 적는 방식을
보니까 어떻게 된다?

00:04:42.189 --> 00:04:44.046
좀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.

00:04:44.146 --> 00:04:49.395
여기 나와 있기는
한데 표음적 표기.

00:04:49.495 --> 00:04:52.728
이런 표현 아셔야 돼요.

00:04:52.828 --> 00:04:57.698
알아도 된다, 대충 봐라
이게 아니라 알아야 됩니다.

00:04:57.798 --> 00:05:02.519
또 하나는 표의적 표기.

00:05:06.565 --> 00:05:15.191
그래서 표음적 표기는 뭐냐면
소리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.

00:05:21.885 --> 00:05:30.330
표의적 표기는 형태소의 원형을
밝혀 적는 것이에요.

00:05:47.583 --> 00:05:49.313

어렵나요?

00:05:49.413 --> 00:05:52.526
지금부터 이해를 하고
접근해야 되겠습니다.

00:05:52.626 --> 00:05:54.268
표준어를 적는 방식.

00:05:54.368 --> 00:05:57.231
아까 전에 제1항에서
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가

00:05:57.331 --> 00:05:59.117
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.

00:05:59.217 --> 00:06:03.956
그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함.

00:06:04.056 --> 00:06:06.958
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.

00:06:07.058 --> 00:06:12.365
이해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
제가 다시 한 번 연결을 시켜볼게요.

00:06:12.465 --> 00:06:14.133
1항에 해당되는 내용을.

00:06:14.233 --> 00:06:15.754
이 부분이 뭐라고요?

00:06:15.854 --> 00:06:21.435
이 부분이 소리대로 적되,

00:06:21.535 --> 00:06:25.516
여러분이 왕초보임을 감안해서
제가 친절하게 다.

00:06:25.616 --> 00:06:34.034
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법에 맞도록
함과 대응되는 부분이다.

00:06:34.134 --> 00:06:37.794
다시 정리하면 제1항에서
소리대로 적되를

00:06:37.894 --> 00:06:39.405
이렇게 해석해야 되고.

00:06:39.505 --> 00:06:41.345
어법을 맞도록 함을
이렇게 해석해야 된다.

00:06:41.445 --> 00:06:43.539
한마디로 표준어를 적는
방식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

00:06:43.639 --> 00:06:45.046
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.

00:06:45.146 --> 00:06:47.500
하지만 이유를 들어보면
이해가 될 거예요.

00:06:47.600 --> 00:06:53.475
왜냐하면 한글은 소리 글자라는
특징을 가졌기 때문에

00:06:53.575 --> 00:06:56.312
제1항에서 소리대로 적는 것을
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
00:06:56.412 --> 00:06:58.445
147쪽에 나와 있죠.

00:06:58.545 --> 00:06:59.940
한글은 소리 글자예요.

00:07:00.040 --> 00:07:01.373
소리 글자가 무슨 이야기입니까?

00:07:01.473 --> 00:07:03.447
지금 딱 보이는 게 ㅅ이잖아요.

00:07:03.547 --> 00:07:04.713
소리 글자라는 게 뭐냐면

00:07:04.813 --> 00:07:09.606
그냥 이 글자 자체가 소리로
발음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.

00:07:09.706 --> 00:07:13.133
일단 소리대로 적는 것을
원칙으로 하고 있어요.

00:07:13.233 --> 00:07:14.568
예를 들어 뭐가 있습니까?

00:07:14.668 --> 00:07:16.657
여기에 해당되는 예들이
뭐가 있어요?

00:07:16.757 --> 00:07:19.530
표음적 표기에 해당되는 것들이
소리나는 대로 적는 거.

00:07:19.630 --> 00:07:30.117
구름, 하늘, 놀다 이런 것들.

00:07:30.217 --> 00:07:33.464
이런 것들은 소리대로 적은 거예요.

00:07:33.564 --> 00:07:35.758
맞춤법에 맞게 소리대로
적은 겁니다.

00:07:35.858 --> 00:07:41.363
그런데 소리대로 적었을 때
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

00:07:41.463 --> 00:07:43.662

지금 이 표의적 표기를
세팅한 건데요.

00:07:43.762 --> 00:07:45.833
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

00:07:45.933 --> 00:07:47.978
체언에 조사가 결합됐을 때

00:07:48.078 --> 00:07:54.052
꽃이, 꽃을 이렇게 했다고 쳐요.

00:07:54.152 --> 00:07:59.880
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
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?

00:07:59.980 --> 00:08:03.545
꼬치, 꼬츨 이렇게 되잖아요.

00:08:03.645 --> 00:08:08.973
이렇게 되면 원래 모양새를 빨리
빨리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

00:08:09.073 --> 00:08:16.473
그래서 단어가 음운 환경에
따라서 다르게 발음될 수 있고

00:08:16.573 --> 00:08:18.995
그래서 소리나는 대로 적는 방식은

00:08:19.095 --> 00:08:25.703
적기에는 편할 수 있지만 이거를
실제로 적었을 때 읽는 사람들,

00:08:25.803 --> 00:08:29.848
즉 독자들이 이렇게 써야 편한 거지

00:08:29.948 --> 00:08:32.102
이거를 소리나는 대로 만약에
적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죠.

00:08:32.202 --> 00:08:34.578
읽기가 되게 힘들겠죠.

00:08:34.678 --> 00:08:36.888
원형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니까.

00:08:36.988 --> 00:08:42.667
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의
불편함을 해결해주기 위해서

00:08:42.767 --> 00:08:45.662
표의적 표기라는 것을
세팅을 한 거다.

00:08:45.762 --> 00:08:49.133
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소리나는
대로 적는 것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.

00:08:49.233 --> 00:08:51.688
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

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00:08:51.788 --> 00:08:54.092
그래서 일단 소리나는
대로 적는 것이 메인인데

00:08:54.192 --> 00:08:57.935
이런 상황,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
적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

00:08:58.035 --> 00:09:00.844
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.

00:09:00.944 --> 00:09:02.088
이해 되시죠?

00:09:02.188 --> 00:09:05.115
그래서 표준어를 적는 방식이 두
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.

00:09:05.215 --> 00:09:08.766
다시 한 번, 147쪽에 한글
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는 방법과

00:09:08.866 --> 00:09:11.689
그다음에 원형을 밝혀 적는
방식 두 가지가 있다.

00:09:11.789 --> 00:09:13.579
원형을 밝힌다는 것은 이거죠.

00:09:13.679 --> 00:09:18.053
꽃이, 체언과 조사 딱
형태를 밝혀 적는 거예요.

00:09:18.153 --> 00:09:22.294
꽃을, 원형 밝혀서 적는 겁니다.

00:09:25.543 --> 00:09:30.401
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
실제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.

00:09:30.501 --> 00:09:36.557
5항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

00:09:41.133 --> 00:09:46.206
이 5항의 규정을 분석하면
전체 조건으로 한 단어 안에서

00:09:46.306 --> 00:09:50.681
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
된소리라는 규정이 있는데.

00:09:50.781 --> 00:09:54.635
이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원래부터
된소리로 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.

00:09:54.735 --> 00:09:56.511
이게 무슨 소리냐?

00:09:56.611 --> 00:09:59.672

5항을 다시 읽어보면,
148쪽에 나와 있죠.

00:09:59.772 --> 00:10:03.297
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
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

00:10:03.397 --> 00:10:10.913
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
적는다고 되어 있습니다.

00:10:11.013 --> 00:10:15.245
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.

00:10:15.345 --> 00:10:18.031
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.

00:10:18.131 --> 00:10:22.717
그러니까 목구멍, 갓길,
외갓집 이런 것들.

00:10:22.817 --> 00:10:29.404
이런 것들은 지금 된소리로
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

00:10:29.504 --> 00:10:33.228
목구멍, 실제로 목꾸멍
이렇게 되죠.

00:10:33.328 --> 00:10:37.563
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
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10:37.663 --> 00:10:45.104
또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
먹게, 입고, 담다 등과 같이

00:10:45.204 --> 00:10:47.797
어간와 어미가 결합될 때
된소리로 변동하더라도

00:10:47.897 --> 00:10:50.086
한 형태소 안에서 나는
된소리가 아니니까

00:10:50.186 --> 00:10:53.302
된소리로 표기하지
않는다는 이야기예요.

00:10:53.402 --> 00:10:56.850
지금 14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
쭉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.

00:10:56.950 --> 00:11:00.171
그런데 제 5항에서 중요한 부분은

00:11:00.271 --> 00:11:02.731
제가 지금 포인트
제대로 짚어드릴게요.

00:11:02.831 --> 00:11:08.023

제5항에서의 시험 포인트는
뒤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.

00:11:08.123 --> 00:11:09.484
앞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.

00:11:09.584 --> 00:11:11.654
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
있는 부분이 아니고

00:11:11.754 --> 00:11:15.835
그 뒤에, 다만이라는 부분이죠.

00:11:15.935 --> 00:11:18.252
다만 하고 이렇게
뒤에 나와 있잖아요.

00:11:18.352 --> 00:11:20.692
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.

00:11:20.792 --> 00:11:22.824
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

00:11:22.924 --> 00:11:25.789
다만 ㄱ, ㅂ 받침
뒤에서 나는 된소리는

00:11:25.889 --> 00:11:28.386
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
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

00:11:28.486 --> 00:11:31.676
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고
되어 있는데요.

00:11:31.776 --> 00:11:35.928
여기서 가장 틀리기 쉬운
부분이 깍두기입니다.

00:11:36.028 --> 00:11:37.991
솔직히 나머지 거는 쉬워요.

00:11:38.091 --> 00:11:39.667
국수 같은 거.

00:11:39.767 --> 00:11:42.682
국수를 이렇게 쓰는 사람 있어요?
없죠.

00:11:42.782 --> 00:11:44.403
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.

00:11:44.503 --> 00:11:48.933
여기 다만 부분에서 굳이
시험 문제를 끌어 써보자면

00:11:49.033 --> 00:11:50.913
예시로 나올 수 있는 게 깍두기.

00:11:51.013 --> 00:11:52.697
그러면 한번 볼까요?

00:11:52.797 --> 00:11:55.157
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
게 깍두기라고 했는데

00:11:55.257 --> 00:11:57.984
제가 문제를 내볼게요.

00:11:58.084 --> 00:12:04.657
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.

00:12:04.757 --> 00:12:06.873
헷갈리지 않나요?

00:12:06.973 --> 00:12:09.419
의외로 이거로 쓰는
사람들이 꽤 많습니다.

00:12:09.519 --> 00:12:11.630
깍뚜기, 발음되는 대로 이렇게.

00:12:11.730 --> 00:12:15.234
실제로 깍두기를 먹었다 할 때
깍뚜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

00:12:15.334 --> 00:12:18.422
그런데 이거는 틀렸습니다.

00:12:18.522 --> 00:12:20.116
이게 맞습니다.

00:12:20.216 --> 00:12:21.660
깍두기가 맞아요.

00:12:21.760 --> 00:12:24.038
이 규범에 의해서.

00:12:24.138 --> 00:12:29.971
ㄱ, ㅂ 받침
뒤에서 나는 된소리.

00:12:30.071 --> 00:12:31.712
물론 깍뚜로 나요.

00:12:31.812 --> 00:12:34.472
실제 발음하면 깍두기가
아니고 깍뚜로 납니다.

00:12:34.572 --> 00:12:36.789
된소리로 분명히 나지만,

00:12:36.889 --> 00:12:39.359
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
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

00:12:39.459 --> 00:12:41.425
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

00:12:41.525 --> 00:12:46.809
이 ㄷ 부분을 ㄸ 된소리로
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.

00:12:46.909 --> 00:12:51.751
그래서 깍두기로 적는 것이
맞다, 맞춤법으로 따지면.

00:12:51.851 --> 00:12:57.672
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정도가 문제가
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.

00:12:57.772 --> 00:13:01.081
5항은 끝났습니다.

00:13:01.181 --> 00:13:04.031
다음 10항 갑니다.

00:13:04.131 --> 00:13:07.428
뭐가 포인트이고 어떤
게 출제되는 부분이고

00:13:07.528 --> 00:13:11.553
이런 것들을 알면 공부할
때 어렵지 않아요.

00:13:11.653 --> 00:13:15.156
제10항은 두음 법칙과
관련된 내용인데요.

00:13:15.256 --> 00:13:18.808
한자음 녀, 뇨, 뉴, 니가
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

00:13:18.908 --> 00:13:21.268
두음 법칙에 따라 여, 요,
유, 이로 적어야 하므로

00:13:21.368 --> 00:13:23.836
년세는 연세로 적어야 합니다.

00:13:23.936 --> 00:13:26.713
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.

00:13:26.813 --> 00:13:29.752
이게 무슨 소리냐.

00:13:29.852 --> 00:13:33.886
두음 법칙은 말 그대로
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

00:13:33.986 --> 00:13:38.889
앞에 어두에 ㄴ이나 ㄹ이
오는 것을 꺼리는 거잖아요.

00:13:38.989 --> 00:13:40.537
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.

00:13:40.637 --> 00:13:42.044
년세, 연세.

00:13:42.144 --> 00:13:46.852
력사가 아니고 역사.

00:13:46.952 --> 00:13:50.908
녀자가 아니고 여자.

00:13:51.008 --> 00:13:52.927
이런 것들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.

00:13:53.027 --> 00:13:57.028
이런 거 내면 누가
틀릴 수가 있겠습니까?

00:13:57.128 --> 00:13:58.458
웬만해서 다 맞죠.

00:13:58.558 --> 00:14:00.698
그러면 어디서 변별이 되느냐.

00:14:00.798 --> 00:14:06.487
역시 이 부분도 다만
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.

00:14:06.587 --> 00:14:10.112
제 10항에서의 다만을
점검해볼까요?

00:14:10.212 --> 00:14:13.895
다만 하고 쭉 나오는데.

00:14:13.995 --> 00:14:17.602
다만, 모음이나 ㄴ
받침 뒤에 이어지는

00:14:17.702 --> 00:14:21.031
렬, 률은 열, 율로
적는다고 되어 있습니다.

00:14:21.131 --> 00:14:23.451
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
번 정리를 해드릴게요.

00:14:23.551 --> 00:14:25.261
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.

00:14:25.361 --> 00:14:26.852
정말 많이 틀려요.

00:14:26.952 --> 00:14:28.812
다시 한 번 이거를 정리해볼게요.

00:14:28.912 --> 00:14:47.224
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는
렬, 률은 뭐로 적는다?

00:14:47.324 --> 00:14:50.810
열, 율로 적는다.

00:15:02.236 --> 00:15:04.431
이해 되십니까? 안 된다고요?

00:15:04.531 --> 00:15:05.760
안 될 수도 있겠죠.

00:15:05.860 --> 00:15:09.815
예시는 아직 안 들었으니까.

00:15:09.915 --> 00:15:15.298
한 번에 이해될 수 있도록
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00:15:31.910 --> 00:15:36.183
실제 시험에서 렬을 건드리는
경우는 거의 없어요.

00:15:36.283 --> 00:15:37.823
렬은 뻔하니까요.

00:15:37.923 --> 00:15:40.832
나렬, 나열.

00:15:40.932 --> 00:15:43.414
나열을 나렬이라고
쓰는 사람 없잖아요.

00:15:43.514 --> 00:15:45.495
렬은 중요한 게 아니고

00:15:45.595 --> 00:15:51.237
문제를 낼 때 이 부분을
많이 건드리는데.

00:15:51.337 --> 00:15:54.981
비율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 비율.

00:15:55.081 --> 00:15:57.802
이런 것도 비률이라고
하는 사람 없습니다.

00:15:57.902 --> 00:16:04.581
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예시를
낼 때 이 두 가지.

00:16:04.681 --> 00:16:05.719
어떻습니까?

00:16:05.819 --> 00:16:07.800
우리 친구들 보면
고민되지 않습니까?

00:16:07.900 --> 00:16:10.597
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.

00:16:10.697 --> 00:16:12.371
뭐가 맞아요?

00:16:12.471 --> 00:16:15.124
이것도 물어보면 반반 나와요.

00:16:15.224 --> 00:16:17.779
백분율이 맞는지 백분률이 맞는지.

00:16:17.879 --> 00:16:20.697
출석율이 맞는지 출석률이 맞는지.

00:16:20.797 --> 00:16:24.018
궁금하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,

00:16:24.118 --> 00:16:27.437
백분율이 맞고 이거는 틀렸어요.

00:16:27.537 --> 00:16:30.216
출석율 아니고 출석률이 맞습니다.

00:16:30.316 --> 00:16:32.126
왜? 바로 이 법칙 때문에.

00:16:32.226 --> 00:16:37.010
열, 율로 쓰는 경우는 앞에가 ㄴ이나
모음 받침으로 끝났을 때예요.

00:16:37.110 --> 00:16:40.602
그러니까 백분율 보면
ㄴ 받침이죠.

00:16:40.702 --> 00:16:45.463
ㄴ 받침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
오는 률은 율로 써야 되는 거예요.

00:16:45.563 --> 00:16:48.521
그래서 율이 맞고 률로
쓰면 틀린 겁니다.

00:16:48.621 --> 00:16:51.241
그러면 출석율 같은 경우는
ㄱ 받침이기 때문에

00:16:51.341 --> 00:16:52.700
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.

00:16:52.800 --> 00:16:54.538
모음도 아니고 ㄴ
받침도 아니에요.

00:16:54.638 --> 00:16:57.581
그래서 출석율로 쓰면 안
됩니다, 출석률이죠.

00:16:57.681 --> 00:16:59.091
이렇게 하는 겁니다.

00:16:59.191 --> 00:17:03.932
이런 정도의 예시들을 제시를
했을 때 맞힐 수 있겠어?

00:17:04.032 --> 00:17:07.114
그런데 그럴 때 못하면
틀리는 거예요.

00:17:07.214 --> 00:17:10.541
그래서 제10항부터 다만
뒷부분을 잘 봐주시는 게

00:17:10.641 --> 00:17:12.151
무엇보다 중요하다.

00:17:12.251 --> 00:17:15.550
다음 내용 갈게요.

00:17:15.650 --> 00:17:22.417
다음은 15항으로 가는데
아까 전에 5항 이야기할 때

00:17:22.517 --> 00:17:27.310
13항이 한 단어 안에서
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

00:17:27.410 --> 00:17:29.062
겹쳐나는 부분은 같은
글자로 적는다.

00:17:29.162 --> 00:17:32.138
이거 씁쓸하다 같은
경우가 예가 되겠죠.

00:17:32.238 --> 00:17:35.662
이거는 149쪽에
두 번째 컷에 나와 있으니까

00:17:35.762 --> 00:17:38.077
13항은 그거로 보면 되고요.

00:17:38.177 --> 00:17:41.979
이제 15항으로 갑니다.

00:17:42.079 --> 00:17:45.389
이거는 용언의 어간과
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.

00:17:45.489 --> 00:17:49.501
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
이거는 당연한 거죠.

00:17:49.601 --> 00:17:52.492
어간과 어미, 당연히 구별해서
적는 거 아니겠습니까?

00:17:52.592 --> 00:18:02.748
예를 들어서 어느 게
어간이고 어느 게 어미이죠?

00:18:02.848 --> 00:18:05.432
딱 잘라서 변하지 않는 부분.

00:18:05.532 --> 00:18:09.801
먹다, 먹고, 먹으니,
먹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잖아요.

00:18:09.901 --> 00:18:11.376
이 부분이 어간이죠.

00:18:11.476 --> 00:18:14.419
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.

00:18:14.519 --> 00:18:17.820
그리고 활용할 때 변하는
부분이 어미죠.

00:18:17.920 --> 00:18:20.316
그러니까 이거를 딱딱 끊어서

00:18:20.416 --> 00:18:23.797
왼쪽과 오른쪽의 형태를
밝혀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죠.

00:18:23.897 --> 00:18:26.337
그러니까 이 먹으니를
이런 식으로 적지 말란 이야기죠.

00:18:26.437 --> 00:18:29.019
소리나는 대로 머그니, 이렇게
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.

00:18:29.119 --> 00:18:30.995
그러니까 용언의 어간과
어미는 구별해서 딱 끊어서

00:18:31.095 --> 00:18:34.719
형태 제대로 밝혀주라는 이야기예요.

00:18:34.819 --> 00:18:36.885
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
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

00:18:36.985 --> 00:18:38.486
누가 이렇게 씁니까?

00:18:38.586 --> 00:18:42.909
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
15항에서 뒤에 보면

00:18:43.009 --> 00:18:47.702
붙임, 이게 까다롭다고 제가
교재에도 언급을 해놨어요.

00:18:47.802 --> 00:18:53.663
붙임 1번을 보면 2개의 용언이
어울려 1개의 용언이 될 적에

00:18:53.763 --> 00:18:56.711
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
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

00:18:56.811 --> 00:19:00.432
그 본뜻에서 멀어진 거는
밝혀 적지 아니한다.

00:19:00.532 --> 00:19:03.633
그래서 예를 들어서
넘어지다의 경우,

00:19:03.733 --> 00:19:07.312
앞말은 넘다인데 본뜻이
유지되고 있으니까

00:19:07.412 --> 00:19:10.608
앞말의 원형을 밝혀
적는다고 되어 있죠.

00:19:10.708 --> 00:19:14.753
그래서 넘어지다.

00:19:14.853 --> 00:19:20.337
넘다의 본뜻이 유지되고
있단 말이에요.

00:19:20.437 --> 00:19:22.843
그런데 앞말이 그
본뜻에서 멀어진 것은

00:19:22.943 --> 00:19:24.611
원형을 밝혀 적지
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.

00:19:24.711 --> 00:19:26.752
이거는 딱 원형을 밝혀 적은 거죠.

00:19:26.852 --> 00:19:28.921
넘다에 넘, 지다에 지.

00:19:29.021 --> 00:19:33.285
딱딱 밝힌 건데 중요한
거는 여기 드러나다.

00:19:33.385 --> 00:19:36.668
이거 잘 보세요.

00:19:36.768 --> 00:19:40.641
제가 칠판에 제시하는 예들만 잘
봐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.

00:19:40.741 --> 00:19:43.715
왜냐하면 틀릴 수밖에
없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

00:19:43.815 --> 00:19:45.520
예시들만 제가 일부로
뽑아서 가져왔어요.

00:19:45.620 --> 00:19:49.071
출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내거든요.

00:19:49.171 --> 00:19:50.728
헷갈리니까.

00:19:50.828 --> 00:19:54.771
드러나다, 사라지다.

00:19:54.871 --> 00:19:56.402
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?

00:19:56.502 --> 00:20:00.852
쓰러지다.

00:20:00.952 --> 00:20:04.110
그런데 이것도 원래는 분석을
해보면 어떻게 됩니까?

00:20:04.210 --> 00:20:07.726

들다+나다이고.

00:20:07.826 --> 00:20:12.370
사라지다는 살다+지다이고.

00:20:12.470 --> 00:20:17.500
그다음에 쓰러지다는
쓸다+지다거든요.

00:20:17.600 --> 00:20:19.347
그런데 잘 보세요.

00:20:19.447 --> 00:20:23.848
드러나다, 여기서 들다는
관련 있어요, 없어요?

00:20:23.948 --> 00:20:24.844
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?

00:20:24.944 --> 00:20:29.776
앞말이 그 본뜻에서 멀어진 거예요.

00:20:29.876 --> 00:20:36.919
본뜻은 들다인데 여기서는
그 원형이 이 뜻대로,

00:20:37.019 --> 00:20:41.750
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
소리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.

00:20:41.850 --> 00:20:44.147
그러니까 앞말의 원형을 밝힌
게 아니라는 말이에요.

00:20:44.247 --> 00:20:46.812
이것도 마찬가지로 살다, 쓸다.

00:20:46.912 --> 00:20:48.355
쓰러지다에서 쓸다의 의미가 보여요?

00:20:48.455 --> 00:20:50.657
안 보이잖아요.

00:20:50.757 --> 00:20:56.954
그래서 이런 게 바로 앞말이
본뜻에서 멀어진 거라서

00:20:57.054 --> 00:20:58.695
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경우다.

00:20:58.795 --> 00:21:00.558
한마디로 이거는 다 뭐다?

00:21:00.658 --> 00:21:04.080
이거는 다 소리나는
대로 적은 경우다.

00:21:04.180 --> 00:21:10.281
다른 말로 표음적 표기.

00:21:10.381 --> 00:21:12.475

왜 소리나는 대로 적었다?

00:21:12.575 --> 00:21:21.084
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앞말이
그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.

00:21:21.184 --> 00:21:24.430
그다음에 붙임2와 붙임3에서는

00:21:24.530 --> 00:21:26.835
종결형와 연결형을 구분해서 용언,

00:21:26.935 --> 00:21:29.563
어간에 공통적으로
사용되는 종결형은 오,

00:21:29.663 --> 00:21:31.708
서술격 조사 이다 뒤에서만
나타나는 연결형은

00:21:31.808 --> 00:21:34.213
요로 적어야 된다고
밝히고 있습니다.

00:21:34.313 --> 00:21:40.177
이것도 같이 잘 보시면 되고요.

00:21:40.277 --> 00:21:44.564
그다음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21:44.664 --> 00:21:47.448
지금 오, 요 같은
경우도 헷갈릴 텐데.

00:21:47.548 --> 00:21:54.412
이것은 책이요, 이런 식으로.

00:21:54.512 --> 00:22:06.148
저것은 붓이요, 이런 식으로 계속
연결해서 나가면 요로 써야 되는 거죠.

00:22:06.248 --> 00:22:07.711
책이오로 쓰지 말고요.

00:22:07.811 --> 00:22:10.396
예를 들어서 저것은
붓이오에서 끝난다.

00:22:10.496 --> 00:22:13.335
이렇게 하면 되죠.

00:22:13.435 --> 00:22:16.980
오는 종결, 요는 연결.

00:22:17.080 --> 00:22:19.893
이렇게 기억하면 돼요.

00:22:19.993 --> 00:22:25.022
그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.

00:22:27.909 --> 00:22:32.687

다음은 19항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

00:22:32.787 --> 00:22:35.033
19항은 여기 나와 있는
거 그대로 읽으면 돼요.

00:22:35.133 --> 00:22:37.480
간단한 거라서.

00:22:37.580 --> 00:22:40.093
어간에 이나, 으, ㅁ이
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

00:22:40.193 --> 00:22:42.958
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
원형을 밝혀 적는다.

00:22:43.058 --> 00:22:47.205
바로 어간에 이, 음이 붙어서
명사로 바뀐 것이라도

00:22:47.305 --> 00:22:51.409
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
밝혀 적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

00:22:51.509 --> 00:22:56.340
그래서 여기 보면
여닫이, 수줍음, 밝히.

00:22:56.440 --> 00:22:59.928
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볼
만한 것은 이런 거죠.

00:23:00.028 --> 00:23:05.398
151쪽 맨 위에
보면, 목거리 있죠.

00:23:05.498 --> 00:23:12.136
이 목거리가 목에 거는
보석 이런 거 말고요.

00:23:12.236 --> 00:23:17.131
목병, 병명의 일종인
목거리가 있어요.

00:23:17.231 --> 00:23:19.479
목에 생긴 병인데요.

00:23:19.579 --> 00:23:22.424
이럴 때는 소리나는
대로 적는다는 거예요.

00:23:22.524 --> 00:23:24.338
목에 병을 의미하는 목거리와

00:23:24.438 --> 00:23:28.019
그다음에 이런 것도 본디
어간의 뜻과 멀어진 단어는

00:23:28.119 --> 00:23:30.136
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나는

대로 적어야 된다.

00:23:30.236 --> 00:23:32.772
원래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.

00:23:32.872 --> 00:23:35.738
목걸이, 이렇게 된 건데.

00:23:35.838 --> 00:23:40.148
지금 보면 본디
어간에, 걸다의 걸과

00:23:40.248 --> 00:23:42.817
목병, 의미가 지금 다르잖아요,
연결이 안 되잖아요.

00:23:42.917 --> 00:23:45.623
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
원형을 밝히지 않고요.

00:23:45.723 --> 00:23:48.909
목병의 의미를 목걸이라고
형용사로 밝혀 적지 않고

00:23:49.009 --> 00:23:51.157
소리나는 대로 적어준다는
이야기예요.

00:23:51.257 --> 00:23:55.090
이거 그냥 보고 이해만 하면 돼요.

00:23:58.452 --> 00:24:02.745
예를 들어서 이런 거.

00:24:02.845 --> 00:24:05.136
귀머거리는 같은 거.

00:24:05.236 --> 00:24:12.989
분석해보면 귀, 먹,
어리 이렇게 되잖아요.

00:24:13.089 --> 00:24:16.404
지금 먹다의 그거랑

00:24:16.504 --> 00:24:21.086
이거랑 관련성이 사실은 떨어지니까
소리나는 대로 적어준 거예요.

00:24:21.186 --> 00:24:23.330
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되고.

00:24:23.430 --> 00:24:27.867
그다음에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
가장 어려운 부분이죠.

00:24:27.967 --> 00:24:30.564
마지막 부분입니다,
바로 30항인데요.

00:24:30.664 --> 00:24:36.116
사잇소리의 표기 방법을

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.

00:24:36.216 --> 00:24:40.324
한마디로 여기서는
사이시옷을 적는 거예요.

00:24:40.424 --> 00:24:44.831
사잇소리가 발생하면 어떤
흔적을 보여주기 위해서

00:24:44.931 --> 00:24:47.208
사이시옷을 적거든요.

00:24:47.308 --> 00:24:49.695
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
이야기할 수 있겠고.

00:24:49.795 --> 00:24:52.245
151쪽에 보면 정말
한 페이지 크게

00:24:52.345 --> 00:24:54.536
다음과 같은 경우에
받쳐 적는다고 해서

00:24:54.636 --> 00:24:56.552
쫙 내용이 나오고 있죠.

00:24:56.652 --> 00:25:01.633
일단은 나눠서 한번
보셔야 되겠습니다.

00:25:01.733 --> 00:25:05.052
어떤 경우에 사이시옷을 적는다?

00:25:05.152 --> 00:25:08.753
다음과 같은 경우에
사이시옷을 적는다.

00:25:11.675 --> 00:25:15.141
사이시옷을 언제 적는가?

00:25:15.241 --> 00:25:19.158
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지만 다시
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

00:25:19.258 --> 00:25:22.497
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라고
되어 있어요.

00:25:22.597 --> 00:25:25.946
지금부터는 절대 파생어 같은
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.

00:25:26.046 --> 00:25:27.551
접사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

00:25:27.651 --> 00:25:30.044
지금 다 합성어입니다.

00:25:30.144 --> 00:25:34.626

그런데 일단 순우리말이니까
고유어+고유어죠.

00:25:38.766 --> 00:25:44.961
그다음에 고유어+한자어.

00:25:51.813 --> 00:25:57.058
그다음에 두 음절로 된 한자어.

00:25:57.158 --> 00:26:05.627
두 음절로 된 6개의 한자어.

00:26:05.727 --> 00:26:11.056
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.

00:26:11.156 --> 00:26:14.866
고유어+고유어부터 보겠습니다.

00:26:14.966 --> 00:26:18.140
151쪽에 내용을 저랑 쭉
따라 가면 될 텐데.

00:26:18.240 --> 00:26:22.599
고유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합성
명사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

00:26:22.699 --> 00:26:25.312
뒷말이 다음과 같은
조건을 갖출 때는

00:26:25.412 --> 00:26:27.041
앞 어근에 사이시옷을 적는다.

00:26:27.141 --> 00:26:31.340
예를 들어서 뒷말의 첫소리가
된소리로 나는 것.

00:26:31.440 --> 00:26:34.441
여기 보면 갈라지죠, 세 가지로.

00:26:34.541 --> 00:26:40.052
잘 보세요, 이거 정신없다고
생각하지 말고 잘 봐야 됩니다.

00:26:40.152 --> 00:26:44.098
해당되는 거를 딱
연결을 시켜드릴게요.

00:26:44.198 --> 00:26:49.778
그래서 잘 이해가 될 수
있도록 다시 한 번.

00:26:49.878 --> 00:26:54.653
1, 2, 3번에
해당되는 예시를 넣고

00:26:54.753 --> 00:26:58.669
여기서도 1, 2, 3번에
해당되는 예시를 하나씩 넣어주면

00:26:58.769 --> 00:27:02.636

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.

00:27:02.736 --> 00:27:09.705
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는 나룻배.

00:27:14.000 --> 00:27:16.345
지금 나루와 배가 합쳐진 거죠.

00:27:16.445 --> 00:27:18.960
나루도 고유어, 배도 고유어예요.

00:27:19.060 --> 00:27:24.138
그럴 때 뒷말의 첫소리가
빼, 된소리가 날 때는

00:27:24.238 --> 00:27:27.517
사이시옷을 넣는다는 이야기예요.
그렇죠?

00:27:27.617 --> 00:27:31.507
나루배가 아니고
나룻배로 넣었잖아요.

00:27:31.607 --> 00:27:36.373
그다음에 두 번째의 예시는 뒷말의
첫소리 ㄴ, ㅁ 앞에서

00:27:36.473 --> 00:27:37.773
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.

00:27:37.873 --> 00:27:39.700
내와 물.

00:27:39.800 --> 00:27:43.754
여기서 ㄴ 소리가 덧나는
내물이 아니고 낸물이죠.

00:27:43.854 --> 00:27:46.001
ㄴ이 생기니까.

00:27:46.101 --> 00:27:48.849
그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
이렇게 사이시옷을 넣어서

00:27:48.949 --> 00:27:50.185
냇물로 표시하는 경우.

00:27:50.285 --> 00:27:53.372
그다음에 나뭇잎처럼 뒷말의 첫소리
모음 앞에서 ㄴㄴ소리.

00:27:53.472 --> 00:27:55.401
ㄴ이 두 번 덧나는 경우.

00:27:55.501 --> 00:27:59.576
나뭇잎, 이런 것들을 각각의
예로 들 수 있고.

00:27:59.676 --> 00:28:06.903
고유 한자어 같은 경우는
예를 들어서 귓병.

00:28:07.003 --> 00:28:11.498
귀와 병, 귀는 고유어이고
병은 한자어죠.

00:28:11.598 --> 00:28:14.144
뒤에 뼝, 된소리 나니까.

00:28:14.244 --> 00:28:19.686
두 번째 경우에는 뒷말의
첫소리 ㄴ, ㅁ 앞에서

00:28:19.786 --> 00:28:22.346
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제삿날.

00:28:22.446 --> 00:28:24.958
제사와 날, 제사날이
아니고 제삿날.

00:28:25.058 --> 00:28:26.295
ㄴ이 생기잖아요.

00:28:26.395 --> 00:28:28.901
그래서 제삿날, 이렇게 쓰고.

00:28:29.001 --> 00:28:37.158
세 번째는 뒷말의 첫소리 모음
앞에서 ㄴㄴ 소리가 나는 거.

00:28:37.258 --> 00:28:40.001
예삿일.

00:28:40.101 --> 00:28:41.889
ㄴ이 2번 생긴 거죠.

00:28:41.989 --> 00:28:44.632
이런 식으로 고유어와
한자어가 결합된 상황에서

00:28:44.732 --> 00:28:46.879
사이시옷을 넣는 경우를
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28:46.979 --> 00:28:50.745
그래서 지금 사이시옷이 들어간
것만 따로 색깔을 칠해보면

00:28:50.845 --> 00:28:52.278
이렇게 되죠.

00:28:52.378 --> 00:28:57.122
이 부분에서 사이시옷이
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28:57.222 --> 00:29:00.140
이해되시죠?

00:29:00.240 --> 00:29:04.592
그다음에 두 음절로 된 6개의
한자어는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.

00:29:04.692 --> 00:29:06.834
이게 뭐가 있어요?
여기에 해당되는 것이.

00:29:06.934 --> 00:29:11.164
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.

00:29:11.264 --> 00:29:22.982
찻간, 그다음에 툇간,
그다음에 곳간,

00:29:23.082 --> 00:29:35.274
그다음에 셋방, 숫자,
그다음에 횟수.

00:29:35.374 --> 00:29:39.082
제가 일부로 이런
순서대로 적었는데요.

00:29:39.182 --> 00:29:41.954
이거 6개 한자어는 반드시,

00:29:42.054 --> 00:29:44.884
원래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에는
사이시옷을 넣는 게 아닌데

00:29:44.984 --> 00:29:47.002
예외적으로 이 6개
한자어 같은 경우에는

00:29:47.102 --> 00:29:48.692
사이시옷을 이렇게 넣었습니다.

00:29:48.792 --> 00:29:50.686
다시 한 번 볼까요?

00:29:50.786 --> 00:29:54.333
다 한자어인데.

00:29:54.433 --> 00:30:02.842
그래서 이 3번 문제를 건드릴 때
많이 내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.

00:30:02.942 --> 00:30:05.320
초점 같은 경우.

00:30:05.420 --> 00:30:09.303
초점을 맞추다 할 때 초점이
맞아요, 촛점이 맞아요?

00:30:09.403 --> 00:30:14.114
많은 친구들이 이것도
맞다고 생각해요, 촛점.

00:30:14.214 --> 00:30:15.343
그런데 이거 틀렸어요.

00:30:15.443 --> 00:30:17.384
이 6개 한자어에
해당되지 않잖아요.

00:30:17.484 --> 00:30:18.896
이게 맞아요.

00:30:18.996 --> 00:30:21.658
그러면 이 6개 한자어를
어떻게 외우느냐.

00:30:21.758 --> 00:30:23.423
이렇게 외우면 돼요.

00:30:23.523 --> 00:30:25.940
찻간, 툇간, 곳간,
셋방, 숫자, 횟수니까

00:30:26.040 --> 00:30:29.600
차타고 세수해, 이런 식으로
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.

00:30:29.700 --> 00:30:31.107
차타고 세수해.

00:30:31.207 --> 00:30:36.649
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하면 쉽게 6개의
한자어를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.

00:30:36.749 --> 00:30:41.249
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이시옷
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

00:30:41.349 --> 00:30:42.755
어렵죠?

00:30:42.855 --> 00:30:49.021
그거 외에도 교재 152쪽에는
37항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어요.

00:30:49.121 --> 00:30:52.684
그래서 ㅏ, ㅕ, ㅗ, ㅜ, ㅡ로
끝나는 어간에 이가 와서

00:30:52.784 --> 00:30:59.141
각각 ㅐ, ㅖ, ㅚ, ㅟ, ㅢ로 줄 적에는
줄어버린대로 적는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30:59.241 --> 00:31:03.365
그래서 이것도 가볍게
봐주시면 되겠습니다.

00:31:03.465 --> 00:31:06.824
오늘 한글 맞춤법 부분에서
가장 어려운 부분은

00:31:06.924 --> 00:31:09.419
이 사이시옷 부분이에요.

00:31:09.519 --> 00:31:14.521
하지만 저와 함께 핵심
예시와 정리를 했기 때문에

00:31:14.621 --> 00:31:21.045
더 이상은 사이시옷이 우리의 발목을

붙잡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

00:31:21.145 --> 00:31:26.451
그러면 정말 고생 많았고요.

00:31:26.551 --> 00:31:31.362
문법 화룡점정 O, X 퀴즈 풀고
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
00:31:31.462 --> 00:31:34.622
1번, 2번 제시가 됐는데 바로
정답 2초만에 나오시나요?

00:31:34.722 --> 00:31:36.268
그래야 되는데.

00:31:36.368 --> 00:31:39.880
정답을 수강 후기에 잘
올려주시기 바랍니다.

00:31:39.980 --> 00:31:42.883
우리 친구들 정말로
고생 많았습니다.

00:31:42.983 --> 00:31:48.287
이제 다음 시간 드디어 규범
부분에서 표준 발음법 부분을

00:31:48.387 --> 00:31:50.932
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.

00:31:51.032 --> 00:31:53.019
다음 시간도 열심히
잘 따라 오시고요.

00:31:53.119 --> 00:31:56.606
많은 사례와 핵심 예시로
우리 친구들의 공부 부담을

00:31:56.706 --> 00:31:58.464
최대한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00:31:58.564 --> 00:32:01.770
그러면 오늘 배운 부분
중에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

00:32:01.870 --> 00:32:03.563
반드시 게시판을 통해서
질문해주시고요.

00:32:03.663 --> 00:32:05.667
마무리 멘트하고 마칠게요.

00:32:05.767 --> 00:32:11.163
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.